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왼쪽)과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반환된 석가탑 사리장엄구 전체를 불단에 올리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석가탑 사리장엄구 '귀가' 조계사서 17일 고불식... 성보문화재 40건 83점 돌아와

1966년 출토 후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온 불국사 석가탑 발견 사리장엄구 전체(국보 제126호)가 12월 17일 조계종에 반환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17일 조계사에서 석가탑사리장엄구의 반환을 알리는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조계종으로 돌아온 유물은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비롯해 금제 사리외합과 은제 사리를 봉안하는 사리장엄구, 녹색유리병, 구슬 등 문화재청에 등록된 것만 40건 83점에 달한다. 여기에는 고려시대 중수한 중수기 등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불교문화재를 이해하는 귀중한 성보문화재가 다수 포함돼 있다.

43년 만에 반환이 결정된 불국사 석가탑 발견 사리장엄구는 발견 이듬해인 1967년, 보존관리를 이유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 보관돼 왔다. 2006년부터 문화재청과 사리장엄구 반환을 협의해 온 조계종은 2007년 3월 반환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측의 반대로 미뤄져왔다.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석가탑 사리장엄구의 소유자가 불국사임이 재확인됐고, 12월 10일에야 반환이 결정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교육원장 현승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한국 불교의 정수가 담긴 성보 중의 성보가 새 보관처를 찾은 오늘날은 종단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라 말했다.

이에 앞서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석가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전체가 43년 만에 조계종에 반환되는 것은 성보가 원 소유주에게 돌아오게 된 뜻 깊은 일"이라며 "이번 반환을 계기로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교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인사말에서 "소중한 성보가 종단에 반환된 것은 종단이 그동안 불교문화재 관리·전시 역량을 축적해온 결과"라 평가했다.

이번 반환의 뒤에는 불교중앙박물관을 설립하고 시설과 전문인력을 최고수준으로 확보하려는 조계종의 노력이 있었다.

범하·성타 스님의 말처럼 이번 석가탑 유물이 반환된 것을 두고 조계종의 문화재 보존 능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문화재 역량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당시 관장 김홍남)은 석가탑 유물의 반환 거부 이유를 "문화재 보존·관리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2010년 조계종 예산안 규모는 210여 억원 규모. 이 중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중앙박물관 등 문화재 관련기관의 예산은 40여 억원에 달한다. 종단 예산 총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계 일각에서는 "자체 발굴과 조사, 관리에는 전문인력 확보 등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은 여전히하다.

이날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추사에서 "소중한 우리나라 문화재인 석가탑 발견 유물의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해 조계종의 문화재 관리 능력에 대한 못미더움을 드러냈다. 같은 날, 국립중앙박물관은 석가탑 발견 유물의 반환·이유에 앞서 2년 여의 보존처리 과정 결과를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관전기사 7면 국가기관에 위탁된 국보급 성보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은 것은 조계종단을 비롯한 불교계의 경사인 것은 확실하다. 이번을 계기로 조계종 문화재관리 능력도 국보급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자승 스님 서민 정책 개발 주문 투명 선거 사회 귀감 이명박 대통령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명박 대통령과 첫 조찬 회동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조찬 회동을 갖고 환담을 나눴다. '소통'과 '화합'을 표방한 제33대 집행부의 대정부 관계개선의 의지표명으로 해석된다.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자승 스님은 경제난 극복에 대한 정부의 노고

를 드린다. 그 지지 속에 새로운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표하며 "이번 불교가 보여준 조화롭고 투명한 선거가 사회에도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다. 감사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민정책 개발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미소금융 사업의 관련 일화 등이 였다. 취임과 경제난 극복에 대한

기회로 불교계도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전통문화를 알리는 일에 정부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총무원 예방식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교계 지원 요청과 정부의 추진 요청 등도 진행됐다.

자승 스님과 이명박 대통령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이명박 대통령이 조찬 회동에서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정책 개발 등을 주문했다. 또 G20정상회의의 개최와 관련해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 불교·전통문화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담화 내용을 공개했다.

자승 스님은 회동에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정부와 대통령의 노력으로 국민 근심이 덜고 있다"며 대통령의 노력이 감사를 표했으며, "겨울이 다가오는데 서민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서민 정책 개발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례 없는 종단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을 축하

대답 이후에는 평창올림픽 개최와 G20정상회의와 연계된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 국가브랜드 향상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대담이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G20정상회의로 한국에 각국 정상들과 주요 경제인사들이 방문하는데 G20회의를 기해 세 국가동력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또 전통불교를 알릴 수 있는

1시간 15분간 회동 후 약 15분간 배석자 없이 비공개 대담을 나눈 것으로도 알려졌다.

원담 스님은 대담 내용 공개에 이어 "총무원장 스님께서 청와대 초청에 응하신 이유는 대

정부와 종단 등의 갈등구조를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며 "'소통과 화합'을 위한 종단 집행부의 기초상 이러한 만남의 면적이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찬회동에는 자승 스님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청와대대변자회 회장)이 배석했다. 노덕현 기자

법구경
니르바나,
저 불멸을 향한 수행의 힘은
결코 늙거나 부서지지 않는다.

현대불교@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한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전문
운주사

키슈현(유년) 삼시수레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011-336-4665
대안불교조계종 전년도할 소액주 용문사

얼레과일 두리안전문
보이차, 각종茶具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불자들의 소중한 후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홍보하는
필거품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ARS 포교후원
0 60 - 700 - 10 8 0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을 모집합니다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제출기한: 2010년 1월 30일(토)
■ 제출방법: 우편(30일까지 도착만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활동분야:
지역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제출처:
(우)110-170 서울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2004-8200 팩스: (02)737-0697

▶8 인터뷰-현승 스님 ▶9 사찰풍경-간월암 ▶14 선지식-현산 스님 ▶23 설법전-심산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 특별기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마음의 뿌리, 자기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입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동행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 이야기**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www.hyunbulshop.com